

##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 GO DEEPER

#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찬46/새31장)
- 기도 Prayer ..... All together 다같이  
1부/조원태 장로 2부/조관희 장로 3부/권조원 장로 4부/윤세희
-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선한 능력으로(작곡 Siegfried Fietz)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마태복음 5:33-37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40-2:12
- 말씀 Message ..... 1, 2, 3부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게임 체인저(14) 언제 맹세를 하십니까?

-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5) 신성모독이로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손세이션 vs. 린세너티

Sonsational vs. Linsanit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영국 프로 축구단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 득점왕이 되어, 황금 부츠 상을 받았다는 낭보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아니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 왔던 순간이 이루어진 것을 그는 믿지 못하겠다고 술화했습니다. 그의 영웅이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 선수가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같은 리그에서 그를 제치고 최다 득점왕의 자리에 오르는 업적을 세운 것입니다. 무명의 축구선수였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역시, 불철주야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혹독하게 훈련해 오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최고의 수훈자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가 손 선수에게 귀에 딱지가 앉도록 교훈한 내용이 마음에 닿습니다. “축구선수가 되는 것보다 겸손이 먼저이다.”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 선수들과 친절히 인사하는 모습, 경기장에서 쫓겨나는 아이에게 달려가 자기의 옷(저지 Jersey)을 벗어주는 모습, 그리고 상대팀의 코치들도 경기 후 손 선수를 껴안아 주는 모습들이 방영되는 것을 보며 아버지의 교훈이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그대로 녹아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손세이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다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손세이션 말을 들으니, 약 10년 전 NBA 농구선수 생각이 납니다. 뉴욕 닉스 제레미 린 선수가, 일약 무명의 선수에서 팀을 살려내는 슈퍼 스타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린 선수는 하버드 대학의 농구선수였습니다. 프로 구단에서 별 관심이 없었던 선수여서, 이 팀 저 팀을 떠돌다 마이너 리그까지 떨어졌다가, 뉴욕 닉스 선수들 중 부상자가 많아서 벤치에 앉았던 대기조 선수였습니다. 뭘 선수가 없어서 투입된 린 선수는 그때부터 경기마다 20점, 30점씩 올리고, 특별히 경기 종료 직전 3점 슛을 성공시켜 팀의 부활을 이끌면서 ‘린세너티 Linsanity’라는 말을 만들어 내게 된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의 전유물인 프로농구 필드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온 타이완-미국인으로서, 그것도 농구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뉴욕 매디슨 구장에서 온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스타가 된 것입니다.

미디어 인터뷰에서 린 선수는 팬들의 열광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경기할 때 내 머릿속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뉴스 앵커가 “어떻게 팬들의 열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까?”라고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때 린 선수의 대답은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 들뜨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을 읽으며, 나는 남들과 다르지 않은 죄인인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을 잘한다고, 나의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 heard a happy welcome news that soccer player Son Heung-Min, who plays for England's pro-soccer team Tottenham, became the season's highest scorer, and received England's Premier League Golden Boots award. This is the first record of not just as a Korean but as an Asian to receive this award. This is wonderful, and we are all very proud. He dreamt of this since a child. He said he couldn't believe that this moment is finally here. In a league where his hero Cristiano Ronaldo plays, Son was able to surpass him to reach the highest scorer position. Although unknown, his father was also a pro-soccer player. He supported and trained his son, making him the greatest player of our time. What his father drilled into him especially touched my heart, “Before you become a soccer player, your humbleness is priority.” On a broadcast, I watched him humbly greet opposing team's players after a game. He would run after a kid who's being chased out of the field and gives him the jersey off his back. Opposing team's coaches come out to embrace Son after the game. I could see how his father's teaching influenced him. This is what made everyone talk about Son, even created a new word Sonsational.

With the word Sonsational, I am reminded of an NBA basketball player about 10 years ago. Jeremy Lin, who played for NY Knicks. He was an unknown player until he rose to stardom by raising up his team. Lin was a basketball player from Harvard University. He was not a player that pro clubs were interested in. He played for many teams and even was dropped to minor leagues. He was on a bench as a substitute player for NY Knicks. There were many injured players at the time. Replacing an injured player, he was sent in to play. After that game, each time he played, he scored 20, 30 points. At the end of a final game, he successfully scored 3 points, reviving the team. The word ‘Linsanity’ spread. In this pro-basketball league, where majority of players are black and white, a Harvard graduate and Taiwanese-American became a star sensationalizing the world from the NY Madison Square Garden.

In his interview, Lin thanked his fan's enthusiastic support, but he also said that he doesn't want this to get to his head. A news reporter asked curiously, “What will keep you from (this Linsanity) getting to your head?” What Lin answered next is something we should all remember. He said, “I just tried to stay grounded...” “Most importantly, I read my Bible and remind myself at the end of the day, I am a sinner just like anybody else. Nothing I do in the court will change that.”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14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언제 맹세를 하십니까?  
(마 5:33-37)

1. 최근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상황에서 하셨나요? 법정 결혼식 혹은 '반드시'라는 말로 약속한 것은 없나요?

2.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라고 하셨습니다(참고/ 신 6:13, 신 10:20). 그런데 예수님은 '헛 맹세'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즉 지키려는 의도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에 권위를 더해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나요?(34-36절)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카락

3. "너희가 들었으니" 하며 예수님은 맹세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 왔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맹세는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세하는 다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정체는 무엇일까요?(참고/ 마 23:16-22)

1) \_\_\_\_\_

2) \_\_\_\_\_

4.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엘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간 사건입니다.(삼상 4:2-11) 결국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진실됨을 지킬 마음 없이 자기의 눈앞의 유익을 위한 '헛 맹세'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요?

5.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맹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셨나요? (참고/ 롬 4:19-25; 창 15:6이하)

적용하기



선교 바자회

# 할까말까, 살까말까 내 걸음은 어느새 이곳에..



2022 선교 바자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작은 정성을 모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바자 행사에 수고와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선교 바자회 기간 동역자를 불러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 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통해 주님이 함께하시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을 감사함으로 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베델 교회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효선 집사

선교 바자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음식 준비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서툰 남자의 손이 도움이 될까 걱정했지만 권사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돕고 왔지만, 3일 동안 묵을 찌고 완벽한 요리를 완성하신 권사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오랜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교와 예배에 힘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과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분들의 수고와 노력 끝에 지금의 교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시간이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영선 집사

바자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선교에 참여할 순 없지만, 바자를 위해 도움의 손길들을 주신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신 것

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클 것입니다. 바자회 준비부터 당일까지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도 있었으나 기꺼이 감당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없다면 어려움을 일입니다. 바자에 도움 주신 모든 분이 선교를 향한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이 감사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이서원 형제(예수)

바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어원은 페르시아어로 Bazaar (a street of small shops)인데 공동 또는 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 세상에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곳은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급적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상인들과 좋은 물건을 가급적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모여 흥정하는 장소인데 지난주 토요일 베델교회 마당에서 열린 선교 Bazaar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먼저 깨닫게 된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였고 날씨도 좋았으나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정낙성 집사

한 목장 안에서 두 팀이 준비하게 됨으로 "주 마음" 셀에게 주신 부담감으로, 셀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모였는데, 참가 의사를 전한 후부터 나의 낮가림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도망갈 틈이 없나 살피던 중 카톡으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두려웠던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실묵실한 간지러움으로 변해 기쁘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의 NO 가없는

무조건적인 Yes 맨의 리더십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부엌에서 만난 베델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한 목표를 세우고 그 궤도를 향해,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화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이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신 목사님들과 기도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묵실묵실 행복한 간지러움이 매일 매 순간 경험되어 지길 소원하며 기도해 봅니다.

주정숙 권사

한 달 전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가 있으니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우리 충성 목장은 새로 오신 조태현 목사님,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던 중 때마침 큐티하고 있던 창세기에 등장한 야곱에게 축복의 장자권을 가져다준 팔죽을 판매하기로 결정! 팔죽 이름은 "팔 블레스유"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윤을 남기려는 상인과 싸게만 사려는 소비자의 모습이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한 보탬을 위해 더 주고 사가는 희한한 바자회!

팔죽의 완성도를 위해 거의 한 달 내내 팔죽을 먹게 되었지만 바자회 전날 교회 부엌에 목사님과 여러 지체들이 모여 손이 많이 가는 팔죽을 함께 기쁨으로 만들 때는 마치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자회 날 교회는 다시 활기차게 들썩였고 한마음으로 열심히 바자회를 준비한 우리 충성 목장은 감사하게도 팔죽 350인분, 식혜와 집에서 직접 만든 레몬으로 만든 레몬에이드 200잔 완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성과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교회에 이 바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셨음을 확신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최동주 집사



6월 수요 예배

#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 자랑하다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 내일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 만날 준비되었는가

그러니 범죄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오늘뿐이다  
오늘 주님이 나를 오라 한다면 주님 만나 칭찬 들겠는가

오늘 이 하루 자족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어두운 밤이 이르기 전에 주님 맞을 준비 하라

산돌 손양원 목사님의 시, '오늘만이 내 날이다'

입니다. 어느 날 교회로 오는 길에 하루가 꼭 평생과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가 저녁에 눈을 감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일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루가 일생이라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길이 내 평생을 잘 사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너의 잘못에 대해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오늘 딱 하루의 삶만 놓고 내가 너를 평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밖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온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생각해보려 합니다.

① 하루를 산다는 것의 의미

② 오늘 하루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③ 오늘 하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오늘 하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해 하루를 온전히 살아냄으로 일생을 온전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강문구 목사



베델 선교-T국

## 이사 탄르 쿠주스 합다 라익순 ~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2022 터키 아웃리치 사역은 귀한 두 분의 선교사님과 저희팀 7명이 이스탄불에 도착 후 가까운 부육아다 섬 일일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아웃리치는 우리 베델교회가 파송하여 협력하고 있는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갑바도키아의 예수아 선교사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 율굽교회를 시작으로, 차로 8시간 북쪽 끝 흑해 연안에 세워진 이란, 아프칸, 이라크 난민 교회와 터키 교회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는 터키에서 가장 큰 삼순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웠던 초창기 교회 역사에 3명의 미국 선교사 가정의 큰 헌신으로 다시금 삼순교회를 굳건히 서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이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3시간 떨어진 시눅 교회는 삼순교회에서 훈련 받고 파송된 아프칸 난민 형제, 카림을 리더로 우리 베델에서 두 번째로 후원하고 있는 개척 교회입니다. 시눅에서 남쪽으로 8시간 이동하여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즈가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마을에서 쫓겨난 유일한 가정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5번째 교회가 없는



도시 시바스를 끝으로 추수할 일꾼을 이 땅 가운데 보내 주시길 기도하며 짧은 5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긴 이동 시간 가운데 찬양과 기도로 힘차게 도시마다 영적 문들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각 교회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 준비하신 비밀 병기와 같은 믿음의 터키인들과 난민 형제, 자매들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필요한 간증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사역과 찬양과 즐거운 판토마임 스킷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함께 먹을 때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2년의 팬데믹 동안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바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또 그분의 믿음직한 종들과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자랑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깨어 마지막 영적 대추수와 부흥을 위해 회개로 나아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윤미 집사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배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배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광관: 오춘란

## 다음 세대 제자훈련 졸업식

지역광고

## BYM 졸업 뱅킷

3월 6일부터 10주간 진행된 다음 세대 제자훈련은 5학년부터 9학년, 23명의 아이들과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한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만든 교재로 성경,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사람, 선택과 예정, 그리고 구원에 대해 매주 말씀으로 배우고,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토론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다음 세대의 제자들은 함께 배우고 기도하며, 10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졸업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훈련을 마친 어린 제자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모두 참석하시어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졸업식 이후부터는 티와나 단기 선교(7월 25일-7월 29일)를 위해 준비합니다. 스페인으로 복음을 외우고 어와나 게임을 전수하기 위해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졸업 뱅킷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High school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대학으로 떠나감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드리고 BYM 어머니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만찬과 저학년 학생들이 준비하는 즐겁고 다양한 순서들로 채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 발걸음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BYM 졸업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한 이번 뱅킷에 필요한 도움의 손길과 관심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간: 6월 4일(토) 오후 6시 30분

▶ 장소: 비전 채플

▶ 문의: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일시: 5월 29일(주일) 오후 2시 30분-4시 30분

▶ 장소: 비전 채플

▶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예배 봉사자

#### 주일예배 대표기도(6월) I

|              |        |        |        |
|--------------|--------|--------|--------|
| 6/5: ①부-정우영  | ②부-천승현 | ③부-최규덕 | ④부-이영진 |
| 6/12: ①부-최문혁 | ②부-최병웅 | ③부-최영수 | ④부-이정수 |
| 6/19: ①부-최주상 | ②부-최호경 | ③부-탁정호 | ④부-전형우 |

####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6월) I

|          |           |           |           |
|----------|-----------|-----------|-----------|
| 6/4: 박기준 | 6/11: 박기홍 | 6/18: 김호선 | 6/25: 박선암 |
|----------|-----------|-----------|-----------|

#### 강단꽃(5,6월) I

|           |          |                |                     |
|-----------|----------|----------------|---------------------|
| 5/29: 송미선 | 6/5: 지효정 | 6/12: 박세환, 조기옥 | 6/19: 김한요, 박경철, 서예원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간호사-한 일(비뇨/산부인과),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신정연

###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I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양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이희숙, 길예령(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일예배 안내** 6월 동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문구 목사께서 수요일예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하시어 뜨거운 기도와 말씀의 나눔으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6면 참고)

일시/장소: 매주 오전 10시, 본당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셀모임 안내** 상반기 셀목자 정기 모임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각 셀 모임은 6월 말까지 진행하고 방학하게 되오니 늘 말씀의 나눔이 있는 셀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선교 다큐 영상 상영 안내** K국의 호세아, 그사랑 선교사와 후원하고 있는 결연 아이들의 감동 넘치는 스토리를 담은 선교 다큐 '안녕! 누를란, 쏘눈'이 현장 상영과 온라인에서 방영됩니다.

현장 상영: 5월 29일(주일) 3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본당

온라인 방영: 6월 2일(목), 9일(목) 오전 10시, 저녁 7시(카톡 채널로 발송 예정)

◆ **제56차 전도폭발 중강예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결신의 열매들을 보고 하고 팬데믹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후원자와 훈련자, 준 훈련자, 훈련생, 전도 대상자 등 마음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월 31일(화) 저녁 7시, 비전 채플

문의: 김중곤 집사 (714)450-0015

◆ **제9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2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6월 1일(수)-6월 30일(목)

문의: 황세현 집사 scholarship@bkc.org, (949)391-9497

◆ **장학 특별 현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 특별 현금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금시 '장학 현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황세현 집사 (949)391-9497 \*온라인 현금도 가능합니다(Tithely)

◆ **VBS 준비 연합 모임** 2022 VBS를 준비하는 봉사자 연합 모임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일시/장소: 5월 29일(주일) 오후 12시 45분-5시, 체육관

◆ **베델 아기학교: 마미 앤미 학교 교사 모집** 기존에 진행되었던 주중 프로그램 아기학교가 새롭게 편성되어 마미앤미 학교로 돌아옵니다. 현재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모든분의 지원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BGC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Fundraising** Bethel Grace Church(EM) 대 학부에서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으로 2부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Taco를 판매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 사역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웨딩 사역 안내** 경조팀에서 웨딩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결혼식에 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웨딩 계획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순고 전도사 (714)612-4075

◆ **베델교회 홈페이지 새단장**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시대에 맞는 트렌디함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니 많이 방문하시고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현금 Subsplash 중단 안내** 기존에 온라인 현금방법 중 Subsplash 서비스는 6월 15일(수)부터 중단됩니다. Tithely는 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현금 기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의: 이수민 집사 (949)854-4010 ext. 112

◆ **교회 건물 평일 소등 시간 안내** 안전을 위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의 사역은 저녁 10시 30분까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 10시 30분에는 교회 전체 소등을 할 예정입니다. 사역이 늦어지는 경우 교회 행정실에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베델 선교 바자회 결산** 지난 5월 21일(토)에 있었던 베델 선교 바자회를 통해 \$41,460의 현금이 모여졌습니다. 귀한 정성과 섬김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익금은 전액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QTn 판매 안내** 6월 교회학교와 BYM 영어 QTn을 판매합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니카라과 단기선교가 5월 29일(주일)-6월 3일(금)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주세요**

- 김영재 형제와 승미진 자매의 결혼식이 5월 28일(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 전형준 은퇴 목사/전윤득 사모의 아들 상우 형제와 윤치원 집사/윤명희 권사의 딸 지나 자매의 결혼식이 6월 1일(수)에 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소명중 집사님(소석현 집사의 부친, 소선희 집사의 시부)께서 5월 1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장호기 집사님(장은돈 집사의 부친, 장미정 집사의 시부, 장수잔 집사의 시부)께서 5월 23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호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 When Do You Make an Oath?

(Matthew 5:33-37)

**1.** Have you made an oath recently? What was the circumstance? Have you made a promise using phrases like 'absolutely' or 'court wedding'?

Apply to Life



**2.** God said to take our oaths in His name (Ref: Deut 6:13, 10:20). But, Jesus told us to not make 'false oaths'. In other words, we tend to make a stronger oath, not with intent to honor it but more to avoid a difficult moment. What situations are today's verses alluding to? (v. 34-36)

**3.** Jesus talks about oath taking starting with the phrase "you have heard". He is saying that we misunderstand and act incorrectly when making oaths. In other words, we think we are not responsible as long as we don't make oaths in God's name, instead taking oaths in other names. But, what is the real reason behind using other names to make oaths? (Ref: Mat 23:16-22)

1) \_\_\_\_\_

2) \_\_\_\_\_

**4.** In Israel's history, an example of using God's name in vain was the incident of El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ho carried the Ark of the Covenant into battle with Philistines. (1 Sam 4:2-11) They end up losing the battle and the Ark is taken by the enemy. It is the result of making a baseless oath, having no intention of keeping honor and truth of God. How about us – have you made any such oaths?

**5.** What is the promise that God made with us? And, did He keep that promise? (Ref: Rom 4:19-25, Gen 15:6 below)